

# 올 추석 차례상 비용 확 줄여 간소하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농축산물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예법 보다 실속있게 ... '정통 차례상' 차리는 가구 급감

올해 추석명절에는 예법에 맞춰 차례상을 차리기보다 비용을 확 줄여 간소하게 할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가 역대 최대인 10일로 가계지출이 늘면서 음식장만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다,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최소한의 음식만 준비하려는 가정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발간한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에 따르면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례상을 예법에 따르지 않고 간소화하려는 소비자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2일 소비자가구(주부) 패널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석에 차례상을 차린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71.2%로, 지난해 74.4%에 비해 3.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차례상을 차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에서도 차례상을 예법에 따라 차리겠다는 소비자는 응답자의 35.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절반 수준인 47.6%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 무려 12.5%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해마다 전통양식에 맞춰 '진짜 차례상'을 차리는 가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 '차례상은 차리지만 간편하게 구성한 맞추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5%로,

지난해 29.8%보다 5.2%포인트 줄었다. 또 '전통 방식에 따르지 않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차례상을 차리겠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12.4%에서 올해 19.3%로 6.9%포인트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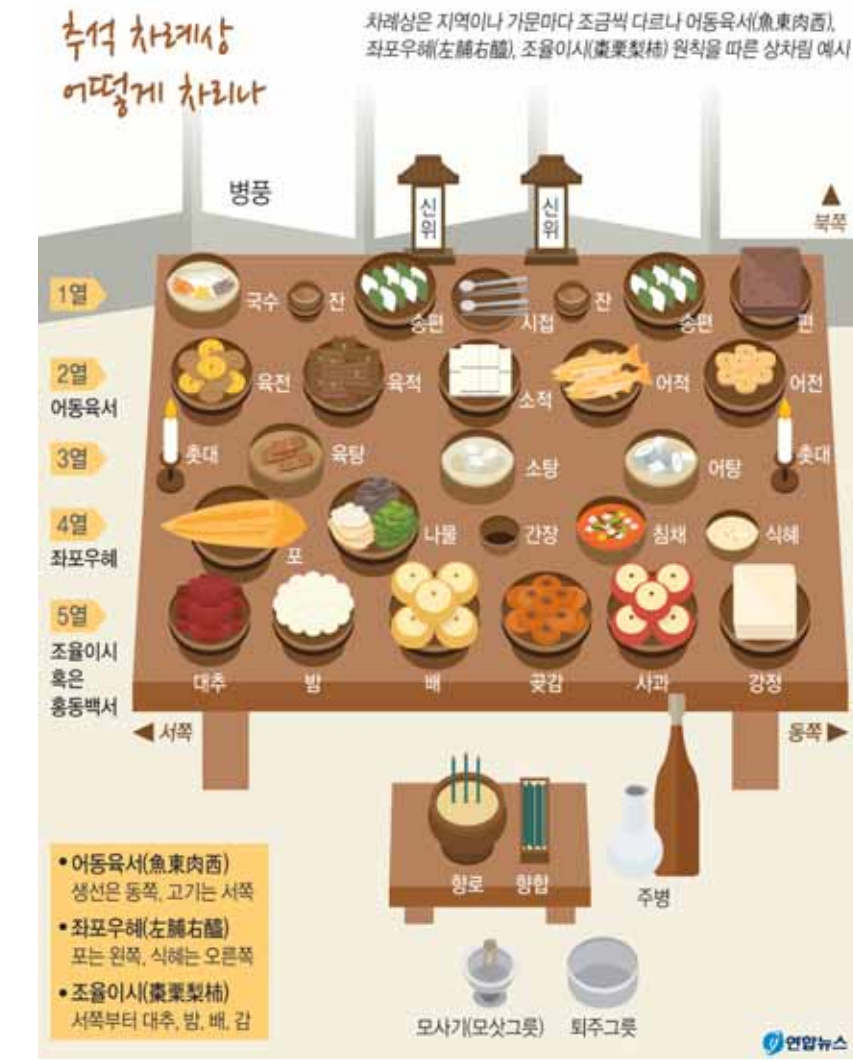
즉, 올해 추석명절에는 차례상을 차리는 가정 중에서 무려 절반을 뛰어넘는 54.3%가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을 간소화하거나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실속있게 차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해보다 제수용 및 가정 내 소비용 명절 음식 비용을 줄이겠다는 소비자는 전체의 17.5%로 지출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14.6%)보다 높았다. 나머지 67.9%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지출을 줄이려는 이유는 장기화된 경제불황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데다, 음식의 양이나 종류도 줄일 계획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일·채소·가공식품·육류 등 명절 음식의 구입시기는 추석 2~4일 전(52.6%)이 가장 많았고, 5~7일 전(25.2%), 1일 전(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음식장만 지출할 비용은 30만원대(37.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만원대(34.4%), 40만원대(10.6%) 순이었다.

한편, 올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추석명절임에도 선물을 구입하겠다는 소비자는 오히려 작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한



79.9%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추석 선물을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비용은 지난해

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선물을 주로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8.21 (+32.14)    금리 (국고채 3년) 1.74% (0.00)  
↑ 코스닥 675.87 (+4.57)    ↓ 환율 (USD) 1126.60원 (-5.10)

##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광주 32만원·전남 27만원

### 광주·전남 가입자 118만7천명

공적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광주는 약 32만원, 전남은 약 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광주·전남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118만7000여명이다.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23만5000여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4700여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6만1000여명이다.

전체 수급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광주는 31만9000원, 전남은 27만4000원이다.

이러한 광주·전남 노령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전국 평균 수급액(35만3000

원)과 비교해보면 각각 3만4000~7만9000원 적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사적연금, 가족이 주는 용돈 등 다른 수입이 없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은퇴 후 최저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액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전·기술보증기금, 에너지신산업 성장촉진 업무협약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기술보증기금과 '4차 산업혁명 및 에너지신산업 성장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은 기술보증료의 약 60%를 지원받게 되고, 금융기관 대출시 평균 2% 정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한전에서 추천하는 350여개 에너지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증발급시 보증료를 17%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한편은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밸리 협약기업, 한전의 스타트업 지원 기업, 한전과 협력R

&D 수혜 기업 및 한전의 주요 기지재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된 기업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 기술보증서 발급신청서 협약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한전에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조환익 사장은 "기술력이 있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전력 에너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자금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 기관이 노력한 자리다"며 "에너지신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성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술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남농협, 농수축산물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개장

### '상큼에' 과일브랜드 홍보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18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및 제수용품을 도시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2017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에 참여해 전남 공동 과일브랜드 '상큼에'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전남의 우수농산물인 장성 사과와 나주 배, 완도 포도, 영암 무화과, 진도 울금, 완도 수산물, 장흥 표고, 선물세트 등 20여 품목을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행사기간 중 전남 공동 과일브랜드인 '상큼에'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무화과, 사과 소비촉진 할인행사 및 무료시식 등 이벤트도 벌였다.

이흥목 본부장은 "정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농산물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참여했다"며 "향후에도 지역농산물 판매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세종간담회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오전 11시 7층 대회의실에서 김상열 회장과 지역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윤환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함께 하는 세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세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 광주세관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

### 수출기업 대상 FTA활용 지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8일부터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FTA모의검증 서비스는 예상되는 상대국 측 원산지검증 전에 세관에서 원산지관리 상태를 미리 점검 해 FTA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국에서 검증하는 실제 절차대로 모의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의 FTA 원산지검증 전문가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자료보관 등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과 대응 노하우를 안내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중 FTA 등 총 15개 협정에 52개국과 FTA를 체결, 체결국과 교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출물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국에서 FTA 특혜가 배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여 수출기업들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양승권 광주본부세관 세관장은 "이 지역 영세 수출기업은 FTA관련 지식 부족에서 오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수출기업의 FTA활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문의는 광주본부세관 YES FTA 센터 062-975-8056~7,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추석선물은 한국제다 명인이 만든 작열차로!

www.hankooktea.co.kr

**장성, 영암, 해남의 싱그러운 차밭을 모아 70년의 세월동안 녹차 본연의 맛을 추구한 한국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국제 녹차 품평회 최우수상 수상.  
LA외 5개국 수출, HACCP 및 ISO22000 인증을 획득.  
아시아나 항공기내 차납품으로 그 맛을 인증받았습니다.

**올 추석에도 명인이 만든 명차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온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한가위 Festival**

무지개 Set, 사계절 Set, 감사 Set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